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10. 30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0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9

국내 항만 주요 동향

❶ 부산항만공사, 해외 항만과의 상호협력 추진 확대
❷ 인천항, 4년만에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
❸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❶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량 증가
❷ 美 산 페드로 베이 항만, 공급망 안정적 유지
❸ 유럽집행위원회, 컨테이너선사 컨소시엄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규정 폐지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❶ 컨테이너 인도량 역대 최고 수준 기록
❷ 제7차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개시 및 아시아 철강업계 타격 우려

항만과 산업은 최신 국내외 항만물동량과 산업동향을 월 2회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657) 또는 이메일(pdac@kmi.re.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PDAC 항만수요예측센터 Port Demand Analysis Center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❶ 부산항만공사(BPA), 해외 항만과의 상호 협력 추진 확대

» 지난 9월 21일, BPA는 이스라엘의 아슈도드(Ashdod)항과 항만 혁신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슈도드항만회사와 온라인 정보교류회를 개최함[1)]

- 아슈도드항은 아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로부터 약 4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스라엘 내 최대 항만임
- 최근 아슈도드항은 우수한 인력과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노베이션 앰버시(Innovation Embassy)'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항만 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해당 정보교류회에서 BPA는 부산항 혁신 중점 분야인 안전, 효율성, 보안 부문에 대한 과제 및 기술 등을 소개함

- 스마트 물류, 디지털 트윈, 자율운항선박 등과 관련하여 BPA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과제 및 혁신기술 등을 소개함
- 이와 관련하여 아슈도드항 역시 부산항에서 추진 중인 과제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혁신기술 등의 정보를 공유함

» 양 사는 향후 전 세계 항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타 항만들에게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개선에 기여하기로 함

» 한편, BPA는 10월 12일에는 크로아티아의 리예카항만공사와 항만물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을 체결하는 등 해외 항만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2)]

- 리예카항은 아드리아해에 인접한 항만으로, 현재 글로벌 최대 선사인 머스크가 터미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해당 터미널이 완공되는 '25년에는 2만 TEU급 초대형선 기항이 가능해져 물동량 증대가 기대되는 항만임
- 양 사는 MOU 체결을 통해 항만 개발·운영 경험 및 정보 공유,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공동 개발 및 투자, 항만 간 물동량 증대 등에 협력하기로 함

1) 부산항만공사(2023.09.2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0789(2023.10.12. 검색)

2) 부산항만공사(2023.10.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0837(2023.10.17.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인천항

❶ 4년 만에 중국발 크루즈선 인천항 입항[3)]

» 인천항만공사(IPA)는 '19년 10월 입항한 셀러브리티 크루즈사의 밀레니엄호 이후 4년 만에 중국발 크루즈 선박 메디테라니아호가 인천항에 입항했다고 밝힘

- 지난 10월 11일 톈진항에서 출발하여 제주항을 거친 후 인천항에 입항한 중국 아도크루즈사의 선박은 약 3,400명의 승객 및 승무원을 태우고 입항함
- IPA에 따르면 상반기 인천항에 기항한 유럽, 미주 중심의 크루즈선 7척과 중국발 크루즈 5항차를 포함해 '23년도에 총 14항차 입항할 예정임
-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 이후 중국발 크루즈선의 '24년도 인천항 선석 신청은 20항차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인천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0.1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5660&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3.10.18.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❷ 인천시,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4)]

» 인천시에 따르면 IPA가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료 일부를 간접 지원한다고 밝힘

- 해당 사업에는 시비 약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약 250여 개의 입주기업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공시지가 5%)에 비해 약 56%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물류비 절감,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이 기대됨
- 한편, 인천시는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간접 지원사업에 총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의 연간 물동량 및 고용창출에 기여해 왔음

4) 인천시(2023.10.13.),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8533408(2023.10.18.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여수·광양항

❶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5)6)]

» YGPA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개소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용역 등을 추진함

- YGPA는 지난 9월 22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계획 등을 논의함
- 해당 용역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전 기획 용역으로, 박람회장의 기초여건과 현황, 국내외 개발사례와 유망수요 분석을 통해 내년 초에 시작될 마스터플랜 용역의 상세 과업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착수보고회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위원회를 비롯하여 실무협의체 위원, 지역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함
- 한편, YGPA는 같은 날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 사무실을 개소하였으며, 성공적인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결의를 다짐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9.2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531&category=(2023.10.16. 검색)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9.2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529&category=(2023.10.16.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 울산항

❶ 울산항만공사(UPA)와 울산화주물류협의회, 합동 포트세일즈 시행[7)]

» UPA와 울산화주물류협의회는 울산항의 액체화물 물동량 증대를 위해 합동 포트세일즈를 펼침

- 추석 연휴를 앞두고 UPA와 울산화주물류협의회 회장단은 울산항 내 탱크터미널 6개 회사를 방문해 화주사가 탱크터미널 이용시 고려하는 탱크시설 및 안전설비 구축 등을 논의함
- 이번 합동 포트세일즈를 통해 UPA-울산화주물류협의회-탱크터미널사는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산업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7) 울산신문(2023.10.03.),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3381(2023.10.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 평택·당진항

❶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분양 공청회 개최[8)]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9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토지분양' 공청회를 개최함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공사가 '21년 1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 기간은 '18년부터 '27년까지임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번 공청회에서 평택·당진항의 개요 및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함
- 향후 공사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12월 말까지 분양전략을 수립해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계획'을 확정지은 뒤 '24년 상반기 분양을 추진할 예정임

8)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9.19.),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75&pageId=K006003001(2023.10.13.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6) 포항항

❶ 에코프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영역 및 생산능력 확대[9)10)]

» 에코프로는 10월 6일 기아, 현대글로비스, 에바사이클, 경북도청, 경북테크노파크와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영역 확대 계획을 발표함

- 배터리 재활용은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배터리 생산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로, 에코프로는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구축한 배터리 복합단지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 중임
- 에코프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배터리 양극소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과 배터리 셀 제조회사에서 공급받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어, 전기차 폐배터리까지 리사이클 영역을 확대할 예정임
- 에코프로 계열사 중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의 생산능력은 현재 연간 약 3만 톤 규모로, 연내에 배터리 리사이클 2공장을 착공해 '25년 1분기에 운영, '25년 4분기에 3공장 설립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헝가리와 캐나다 등에도 라인을 구축하여 '27년 총 6만 1천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임

9) 경북도민일보(2023.10.15.),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587(2023.10.18. 검색)

10) 전기신문(2023.10.1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166(2023.10.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7) 동해·묵호항

❶ 동해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11)]

» 동해시는 동해항을 환동해권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함

- 동해항은 환동해권 최단 연결 해상 교역 거점항만이자 북극항로, 시베리아 횡단열차,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물류 거점임
- 동해시는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이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동해시는 '22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 특례 반영을 건의, 추진계획을 수립함
- '23년 2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특례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포함됨

» 동해시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2억 원을 투입, 내년 4월까지 동해항 및 배후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함

- 이번 용역에는 자유무역지역 위치 및 경계, 개발사업 시행자, 개발기간 및 방법, 기반시설 및 입주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을 가시화할 예정임

11) 동해시청(2023.09.25.), https://www.dh.go.kr/www/selectBbsNttView.do?key=489&bbsNo=95&nttNo=176601(2023.10.10.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목포항

❶ 목포시, 세계 최초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테스트베드 개발 순항[12)]

» 목포시는 지난 9월 22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 시설인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테스트베드의 용골거치식을 개최함

- 지난 '22년 9월 강재절단식 이후, 1년여 만에 개최되는 용골거치식은 선박의 선수에서 선미까지 바닥을 받치는 중심 뼈대인 용골(龍骨, Keel)을 놓는 과정으로, 선박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됨을 알리는 행사임
-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선박 해상테스트베드 구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관하에, ㈜KTE,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등 민간기업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조는 ㈜한국메이드가 담당함
-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실증에 필요한 추진기관별 선박을 각각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됨
-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해상테스트베드는 한 번에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암모니아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시험하고 실적을 확보할 수 있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에 건조되는 해상테스트베드는 약 1MW급의 혼소엔진,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의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평가 지원이 가능한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 규모임
- 한국선급의 검사 및 시험운항 등을 거쳐 오는 '25년부터 친환경 선박 기자재와 대체연료의 실증 및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임
- 한편, 목포시는 급변하는 조선·해운산업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남항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 중임

12) 목포시 보도자료(2023.09.26.),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518945&page=6&mode=view(2023.10.16.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9) 대산항

❶ 서산시, 모항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 관계기관 합동 사전점검 실시[13)]

» 충남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TF팀과 서산시의회는 10월 13일 부산항에서 '코스타세레나호'를 방선 시찰함

- 이번 시찰은 '24년 5월 대산항을 모항으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선 사업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마련됨
-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TF팀은 서산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서산시,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등 크루즈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찰에는 총 35명이 참가함
- 시찰 대상 크루즈선은 이탈리아선사 코스타사의 코스타세레나호로, '24년 5월 8일 서산에서 출발하여 일본, 대만 기항지를 운항할 예정임
- 사전점검 참가자들은 코스타세레나호가 입항한 크루즈 부두시설 등 접안 여건을 살펴보고 코스타세레나호의 규모, 선체 길이 등 외관 상태를 점검했으며, 코스타 관계자로부터 회사 소개와 '24년 운항 계획을 듣고 대극장, 레스토랑, 수영장, 카지노, 객실 등 코스타세레나호 주요시설을 시찰함

13) 충청뉴스(2023.10.13.),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025(2023.10.17.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10) 군산항

❶ 전라북도,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4)]

»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9월 25일 '전북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 체결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향후 전북도 해역에 조성예정인 풍력단지(서남권 2.4GW, 군산시 1.6GW)에 도내 생산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풍력 터빈 공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항만 인프라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협력하기로 함
- 현대일렉트릭은 군산항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지를 검토할 예정임
- 이후 나셀 조립과 발전기 생산 등 풍력 터빈 생산공장의 사전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4년도에 전라북도가 공모 예정인 1.2GW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임
- 또한 현대일렉트릭은 '26년까지 약 1천억 원을 GE와 공동 투자해 군산시 내에 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도 발표함

14) 전라북도 보도자료(2023.09.25.),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20&menuCd=DOM_000000111001000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D%95%B4%EC%83%81%ED%92%8D%EB%A0%A5&dataSid=774703(2023.10.18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1) 마산항

❶ 화물선 연료유 150리터 유출, 11시간 만에 수습[15)]

» '23년 10월 1일 오전 1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4부두 인근해상에서 계류 중인 화물선에서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돼 긴급 방제작업을 펼친 결과 11시간 만에 수습이 완료됨

- 창원해경은 2만 톤급 홍콩 선적 화물선이 한국 선적 급유선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기름이 에어 벤트(공기 순환 통로)로 넘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조사결과, 연료유는 약 150L(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만 사고 즉시 주변으로 약 20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추가 오염을 방지하고, 유합착제 등 방제자재를 긴급 동원해 방제작업은 완료됨

15) 연합뉴스(2023.10.01.),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1&bbsIdx=100169(2023.10.13.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❶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량 증가[16]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23년 8월 누적 기준 양 국가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550억 달러를 기록함

- 중국의 對러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2% 증가한 718억 달러, 수입은 같은 기간 13.3%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함
-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 품목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건설장비, 자동차, 전자기기 등임
-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무역을 축소한데 반해, 중국은 러시아를 서방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이자 핵심적인 균형추로 판단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주요 소비재 등을 수출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이 지난 8월 러시아로의 자동차 수출 금지조치를 확대하면서 러시아에서 중국산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17]

» 그러나 양 국가의 교역 불균형으로 러시아 내 중국발 컨테이너가 쌓이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컨테이너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 컨테이너 물류 플랫폼인 Xchange는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화물량 대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적어 러시아 내 중국발 컨테이너가 약 15만 개가 쌓여있다고 분석함
- 또한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소비재 등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반면,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원유, 천연가스 등은 철도 혹은 탱크선 등을 통해 운송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두 국가의 교역은 남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교역액은 사상 최대인 2천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컨테이너 공급과잉 문제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6) CNN News(2023.09.29.), https://edition.cnn.com/2023/09/29/business/russia-china-trade-shipping-containers-intl-hnk/index.html(2023.10.12. 검색)

17) Nikkei Asia(2023.10.04.),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China-border-city-thrives-as-trade-with-Russia-booms(2023.10.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❷ 중국,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유럽 항만 영향력 확대[18)]

» 중국은 성공적인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유럽 항만의 투자 및 교역 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중국 국영기업인 COSCO Shipping은 현재 181개의 컨테이너 정기노선 가운데 약 50%를 일대일로(BRI) 협력국에 투입하고 있으며, '26년 그리스 피레우스항 지분 67%, '23년 5월 함부르크항 Tollerort 터미널 25% 지분 등을 인수함
- 이에 따라 코로나19 펜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 간의 무역은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22년 기준 중국과 EU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사상 최대 무역액인 8,473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독일의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량이 총 교역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차, 리튬이온 베터리, 태양전지 등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항공기 부품으로 나타남
- 또한 독일 브레머하펜항에서는 중국 자동차 전용선의 정기선 항로가 첫 취항을 개시하였으며, 그리스 피레우스항에서는 중국발 컨테이너선 하역 작업이 기존 1.5일에서 2일로 증가하는 등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힘

» 한편, 미국의 견제 및 유럽 내 중국 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거리를 두는 유럽 국가 등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 9월 G7 가운데 유일하게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가입한 이탈리아가 탈퇴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함[19)]

18) Hellenicshipping News(2023.10.11.),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europe-forge-deeper-ties-via-thriving-maritime-trade-routes/ (2023.10.12 검색)

19) 연합뉴스(2023.09.11.),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911014200032(2023.10.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아시아

❶ 싱가포르항, Berge Olympus사의 풍력화물선 첫 입항[20)]

» MPA(싱가포르 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싱가포르항에 풍력 추진 장치를 갖춘 21만 DWT급 건화물선(Berge Olympus호)이 입항함

- Berge Olympus호는 4개의 대형 WindWing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돛이 바람의 힘을 활용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CO2 배출을 경감시킴
- Berge Olympus호와 함께 운항중인 세계 최초의 풍력 화물선인 Pyxis Ocean호도 지난 9월에 싱가포르항에 입항하였으며, 싱가포르 국적 선박인 Pyxis Ocean호는 일본 Mitsubishi Corporation이 선박 건조에 참여함
- 한편, MPA는 온실가스 배출 없는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해서 풍력 추진과 같은 대체 기술의 적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풍력 화물선 Berge Olympus호



자료:www.manifoldtimes.com

20) manifoldtimes(2023.10.18.), https://www.manifoldtimes.com/news/port-of-singapore-welcomes-recent-visits-of-wind-powered-vessels/ (2023.10.19.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❷ '23년 8월 기준 일본의 원료탄 수입량, 최근 3년 기간내 최고치 기록[21)]

» 일본 재무성은 8월 기준 원료탄 수입량은 조강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미국의 출하량 증가로 인해 지난 '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일본의 8월 조강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9% 감소한 71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일본 내 자동차 생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이 끝나가는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원료탄 수입량은 598만 톤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약 27% 증가하였으며, 8월 누적 기준으로는 4,24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 주요 수입 국가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호주에서 수입한 물동량은 327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2%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117만 톤, 미국 84만 톤 수준임

21) argus(2023.09.28.), https://www.argusmedia.com/en/news/2493740-japans-aug-coking-coal-imports-at-over-threeyear-high(2023.10.16.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❸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도 수출에 어려움 전망[22)]

» 국제무역 관련 세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의 상품 수출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는 "인도의 상품 수출에 있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보험료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인도와 이스라엘 간 서비스 무역은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인도의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품은 디젤과 연마된 다이아몬드이며, 주요 수입품은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전자 및 통신제품, 염화칼륨 등이 있음
- 또한 이스라엘과 인도는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부문별 상당한 규모의 상호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 기업들은 인도에 '00년 이후 약 2억 8,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함
- GTRI는 이스라엘 내에서 인도와의 상품 무역 대부분을 담당하는 에일라트 항만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경우 상당한 무역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함
- 다만, 전쟁의 기간과 강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22) Port Technology(2023.10.1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srael-hamas-conflict-spells-woes-for-indian-exports/(2023.10.17.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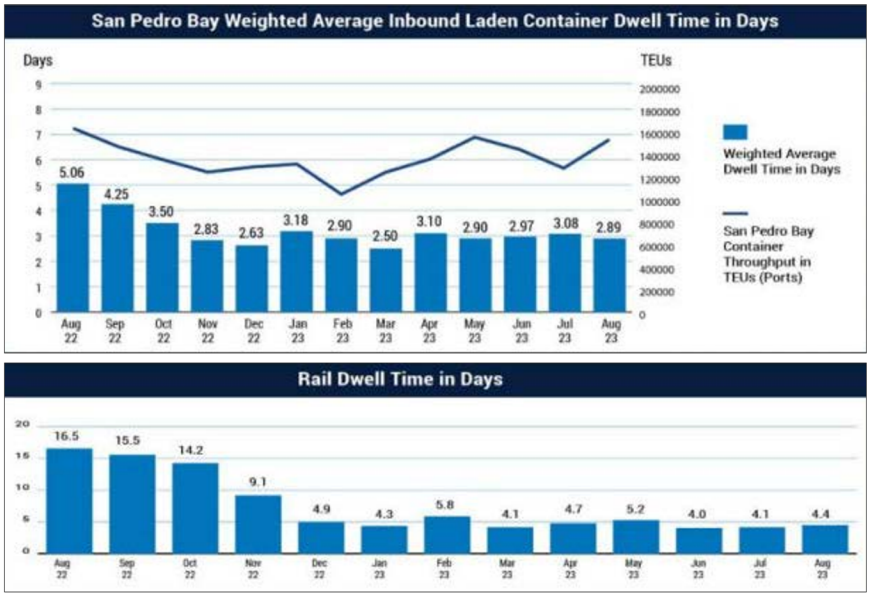
3) 미주

❶ 산 페드로 베이(San Pedro Bay)항만, 공급망 안정적 유지[23)]

» 태평양상선협회(PMSA: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는 지속적인 글로벌 변화에도 산 페드로 베이의 공급망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 '23년 8월, 트럭을 통해 배송되는 화물은 항만에서 평균 2.89일을 소요했으며, 7월 평균인 3.08일에 비해 소폭 감소함
- 동 기간 내 철도를 통해 수송되는 화물의 경우 항만에서 평균 4.45일을 소요했으며, 7월 평균인 4.14일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이는 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함

산 페드로 베이 입항 컨테이너의 체류시간 추이



자료: Port Technology(2023.09.2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registers-steady-container-dwell-times-in-august/(2023.10.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❷ 오클랜드항, 선회장(Turning Basins) 확장사업 추진[24)]

» 오클랜드 항만당국은 'Oakland Harbor Turning Basins Widening Navigation'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보고서 초안을 발표했으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3) Port Technology(2023.09.2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registers-steady-container-dwell-times-in-august/(2023.10.17. 검색)

24) Port Technology(2023.10.0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oakland-progresses-turning-basins-widening-project/(2023.10.17. 검색)

- 해당 사업은 1,310피트(약 400m) 규모의 선박 통항이 가능하도록 선회장 두 곳을 개선하는 사업임
- 선회장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대형 선박의 안전한 통항과 효율적인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선박 대기시간 감소, 안벽 생산성 개선 및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이 기대됨
- 항만당국은 환경영향보고서(EIR: Environmental Impact Report)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EIR을 마무리하면, 항만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에 따라 준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❸ 캘리포니아주, 총 70억 달러의 연방 수소 보조금 확보[25)26)]

» 미국 에너지부는 산 페드로 베이(San Pedro Bay) 항만의 수소 허브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최대 12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미국 에너지부(DOE)가 추진하는 '지역 청정수소 허브(H2Hubs)' 프로그램은 기후와 경제를 위해 연방자금이 투입되는데, 초당적 기반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라 자금이 지원됨
-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7개 '지역 청정수소 허브' 중 하나로 선정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ARCHES(Alliance for Renewable Clean Hydrogen Energy Systems) 자금 총 7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사용될 예정임
- 보조금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한 화물장비와 수소연료 공급트럭 또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항만 터미널 배치에 투입될 예정임
- 다음 단계에서는 화물장비 추가와 주 전체에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형트럭 5,000대 배치를 지원할 계획임
- 산 페드로 베이에 위치한 LA항과 롱비치항은 청정대기 행동계획(CAAP: Clean Air Action Plan)을 만들어 항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배출 제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05년 이후 롱비치항의 항만 관련 대기 오염 배출량은 크게 감소함

» 오클랜드항은 수소사업을 통해 최대 12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예정임

- 이번 자금은 미국내 저비용 청정수소 시장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허브는 수소의 생산 및 사용, 대기질 개선, 캘리포니아에 친환경 일자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Port Technology(2023.10.1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ports-complex-awarded-1-2-billion-federal-hydrogen-grant/(2023.10.17. 검색)

26) Port Technology(2023.10.1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oakland-secures-federal-funding-for-hydrogen-projects/(2023.10.17. 검색)

4) 유럽

❶ 앤트워프-브뤼헤항 및 로테르담항, 선박 벙커링 측정시스템 의무화[27]

» 앤트워프-브뤼헤항과 로테르담항은 '26년 1월부터 두 항만의 벙커링 선박들이 공급하는 연료의 정확한 양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고 발표함

- 두 항만은 벙커링 시장에서 반복되는 물량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벙커링 시장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게 만들고자 함
- 지난 몇 달간 각 항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법률 차이를 고려하여 벙커링 측정시스템 도입의 실제적 측면을 검토했다고 밝힘
- 현재 양 항만의 170대 벙커링 선박 중 40대가 이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발표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❷ 머스크·하파그로이드·CMA CGM, EU ETS 요금 공시[28]

»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 하파그로이드, CMA CGM이 EU 권역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24년 1월부터 적용할 EU ETS 요금을 발표함

- EU ETS는 '24년 선박 총 배출량의 40%, '25년 70%, '26년 100%를 적용 범위로 할 예정이며, '26년에는 NOx와 메탄도 범위에 포함할 예정임
- 그러나 EU 권역 밖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노선의 경우, 배출량의 50%에 대해서만 EU ETS 요금을 부과하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제3국이 해당국 관할 지역에서 탄소 요금을 결정·부과하도록 할 예정임
- 하파그로이드는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대해 TEU당 12유로(리퍼 컨테이너 31유로), 동아시아-남유럽 노선은 7유로(리퍼 컨테이너 16유로), 대서양-유럽 노선은 9유로(리퍼 컨테이너 16유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17유로(리퍼 컨테이너 29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요금을 갱신할 것이라고 발표함
- 머스크의 경우 극동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의 컨테이너와 리퍼 컨테이너에 대해 FEU당 각각 70유로와 105유로(반대 노선의 경우 각각 46유로, 69유로), 북미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노선의 컨테이너와 리퍼 컨테이너에 대해 FEU당 66유로와 91유로(반대 노선의 경우 각각 91유로, 137유로)로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공시함
- CMA CGM은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대해 컨테이너와 리퍼 컨테이너 TEU당 각각 25유로와 40유로, 유럽-북미 노선에 대해 각각 43유로와 65유로의 요금을 발표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Port Technology(2023.10.1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s-of-rotterdam-antwerp-bruges-announce-bunker-measurement-system/ (2023.10.18. 검색)

28) Seatrade Maritime(2023.10.13.),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ontainer-lines-set-out-eu-ets-surcharges(2023.10.18. 검색)

❸ 유럽집행위원회, 컨테이너선사 컨소시엄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규정 폐지 결정[29)]

» 10월 10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컨소시엄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규정(CBER)이 '24년 4월 25일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CBER은 컨테이너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박 공유 협정과 같은 공동 운영을 할 때 독점금지법을 면제하는 규정임
- EU는 '08년에 해운 얼라이언스가 운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를 수반하지 않는 협력 협정인 컨소시엄에는 적용제외를 허용했으며, 이는 '14년과 '20년에 더 연장됨
- 그러나 '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고, 수급 차질로 인해 운임 상승의 어려움을 겪은 화주 단체 등의 CBER 연장 반대 의견이 확대되었음
- EC는 CBER이 '20년부터 '23년까지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 제도의 폐지 결정을 발표했고, 다만 EU의 경쟁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 선사 간 협력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29) Seatrade Maritime(2023.10.11.),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ec-ends-container-lines-consortia-block-exemption(2023.10.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5) 오세아니아

❶ 포스코, 호주 필바라 수소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30)]

» 포스코가 2050 탄소중립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 포트헤들랜드(Port Hedland)항의 HBI(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환원철의 일종) 공장에 그린수소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함

- 포스코는 프랑스 에너지 전문 기업 엔지(Engie)와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24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임
- '22년 9월 호주에서 가장 큰 철광석 선적항만인 포트헤들랜드에 HBI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 광산개발과 HBI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현재까지 호주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철광석, 리튬, 니켈 등 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철광석 사업에도 참여 중임

30) Mining weekely(2023.10.13.), https://www.miningweekly.com/article/posco-eyes-hydrogen-for-pilbara-hbi-plant-2023-10-13(2023.10.14. 검색)

» 포스코는 '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30~40조 원을 투자해 관련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아프리카

❶ 우크라이나, 케냐 몸바사항(Port of Mobasa)에 곡물 허브 구축 계획[31)]

» 케냐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몸바사항에 곡물 허브를 설립, 동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케냐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논의를 통해 허브 구축을 계획,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심화된 식량 부족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현재 케냐, 소말리아 및 에티오피아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 공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 문제가 극심한 상황임
- 케냐 정부는 몸바사항에 곡물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식량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31) Anadolu ajansi(2023.09.20.), https://www.aa.com.tr/en/africa/ukraine-to-establish-grain-hub-in-kenyas-port-of-mombasa/2996392(2023.10.0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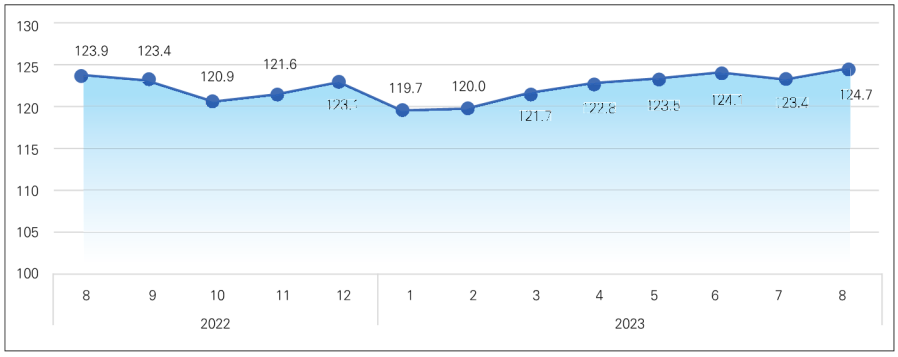
1) 컨테이너

❶ '23년 8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0.6% 증가[32)]

» '23년 8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전월 대비 1.1% 증가하면서 '2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8월의 이 같은 상승세는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에 기인하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처리량이 감소함
- 중국의 경우 지난 7월 139.3p에서 143.0p으로 3.7p 상승, 반면 유럽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4.7p 감소하면서 103.1p을 기록함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컨테이너	123.9	123.4	120.9	121.6	123.1	119.7	120.0	121.7	122.8	123.5	124.1	123.4	124.7	1.1	0.6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ly-2023(2023.10.12. 검색)

32)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ly-2023(2023.10.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❷ 미국, '23년 9월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33)]

» 미국의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미국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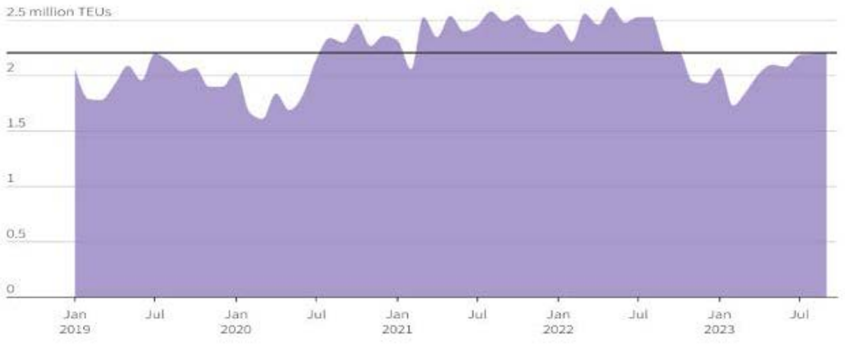
- '23년 9월 누적 기준 미국의 수입 물동량은 코로나 이전인 '19년 9월 누적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9월 당월은 '19년 9월 대비 8.0% 증가함

» 소매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물량이 회복함

- 분석가들은 소매업체들이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폭증된 수요를 경험하면서 '22년 중반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전략을 시행하였지만, 이후 양적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소비가 침체 되어 재고를 소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현재 소매업체들은 예비 공급을 서두르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 신호에 따라 수입을 진행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물동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딜로이트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 연휴 시즌 내 매출 성장률을 3.5%~4.6%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18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임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추이



원자료 : Descartes Datamyne(2023.10.10.)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us/us-holiday-shopping-season-nears-retailers-importing-like-it-is-2019-2023-10-10/ (2023.10.12 검색)

33) REUTERS(2023.10.11.), https://www.reuters.com/markets/us/us-holiday-shopping-season-nears-retailers-importing-like-it-is-2019-2023-10-10/ (2023.10.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❸ 컨테이너선 인도량 역대 최고 수준 기록[34)]

»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확장 속에서 7월 누적 기준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싱가포르 해운·항만 분석기관인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는 현재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최고 수준이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2년간 이어질 전망이라 밝힘
- 컨테이너 선대의 월 평균 증가 규모가 '15년 당시에는 12만 TEU에 불가했지만, '23년 4월 이후 월평균 19만 TEU 이상 컨테이너 선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난 10년간 컨테이너 선대의 연간 성장 규모는 약 100만 TEU 수준이었으나, 올 한해 인도량만 220만 TEU에 달할 전망임

» 코로나19로 특수로 인한 호황기 시절 발주했던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25년부터 증가하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신조선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한편, 이러한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에 따라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기준 9월 28일 컨테이너 운임은 886.85p로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년 5월 이후 3년 만에 900p선이 무너짐

34) The Guru(2023.10.08.),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0851(2023.10.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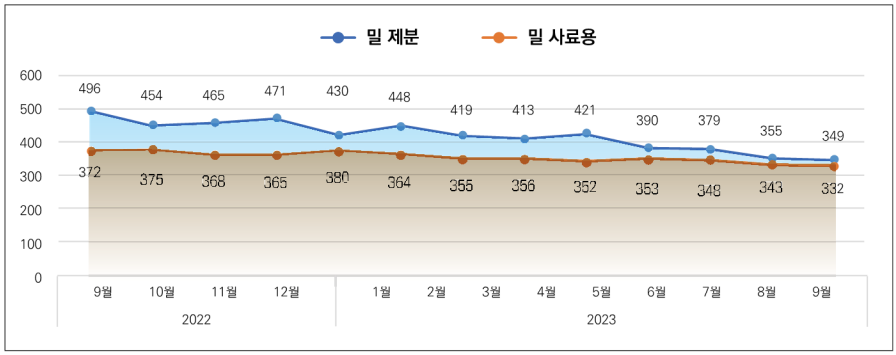
2) 양곡

❶ '23년 9월 주요 곡물 수입단가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세 기록[35)]

» 식용 밀의 9월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29.6% 하락한 349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332달러/톤)도 전년 대비 10.8% 하락함

- 9월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0.8% 하락한 332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사료용 옥수수(309달러/톤)의 수입단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세(-19.1%)를 기록함
- 채유용 콩의 9월 수입단가 역시 전년 대비 15.7% 감소한 577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대두박의 경우 전년 대비 6.4% 하락한 551달러/톤을 기록함

밀 수입단가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관측월보 9월호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옥수수	식용	428	393	383	367	381	371	356	345	346	339	325	300	289
	사료용	382	364	338	335	336	333	332	334	337	336	332	321	3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관측월보 9월호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관측월보 9월호(2023.09.27.),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380/page/1(2023.10.18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❷ 우크라이나, 흑해곡물협정 파기 이후 대형곡물선 출항 재개[36)]

» 지난 '23년 7월 흑해곡물협정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 흑해 항만에서 대형곡물선(17,600톤급) 출항이 재개됨

- 흑해 곡물협정은 러-우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이 중단되자 '22년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아래 체결된 협정
- 곡물 수출 대국인 우크라이나('21년 기준 옥수수 4위, 밀 5위)의 수출 중지로 초래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되었으나 지난 7월 17일 네 번째 연장이 무산되어 사실상 파기됨
- 사실상 러시아에 의한 흑해 항로 봉쇄를 깨기 위해 지난 9월 22일 우크라이나산 밀을 싣고 Aroyat 호가 초르노모르스크(Chornomorsk) 항만을 출항함
-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로가 폐쇄된 기간 동안 오데사주의 다뉴브 강을 통해 곡물 수출을 지속해왔으나 항만을 통한 선적 물량 규모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곡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과 흑해 항로 폐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벌크선박의 출항을 재개함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3.09.25.),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415/page/2(2023.10.18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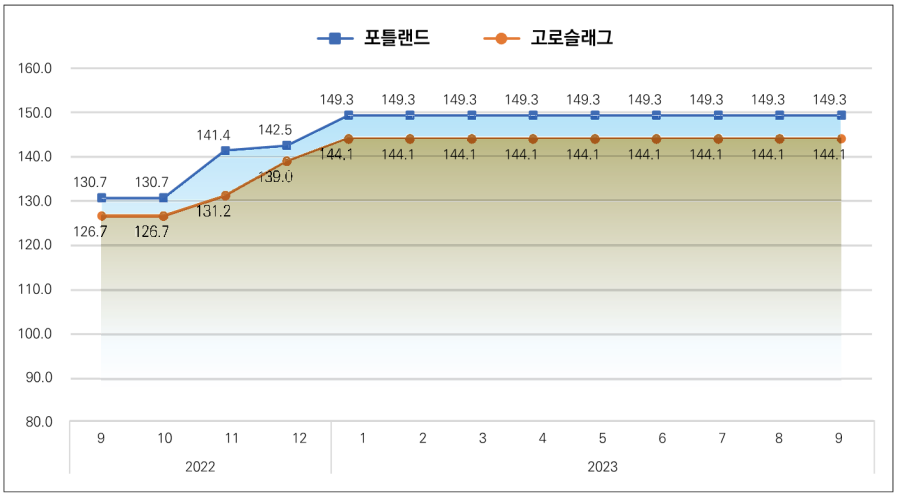
❶ 9월 생산자물가지수 9개월째 보합세 유지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49.3p, 144.1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월 이후 9개월 동안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26.7	130.7	130.7	141.4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0.0	14.2
고로슬래그	121.3	126.7	126.7	131.2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0.0	13.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10.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❷ 쌍용 C&E, 시멘트 가격 6.9% 인상[37)]

» 쌍용 C&E는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의 회의를 통해 11월 16일부터 시멘트 공급가격을 톤당 11만 2,000원으로 6.9%(7,2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함

- 쌍용 C&E는 당초 14.1% 인상을 제시했지만 레미콘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6.9% 인상안으로 합의, 타 시멘트 제조사들도 1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연달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시멘트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고환율 등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을 최근 2년 내 세 차례 인상함

37) 대한전문건설신문(2023.09.25.),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77(2023.10.0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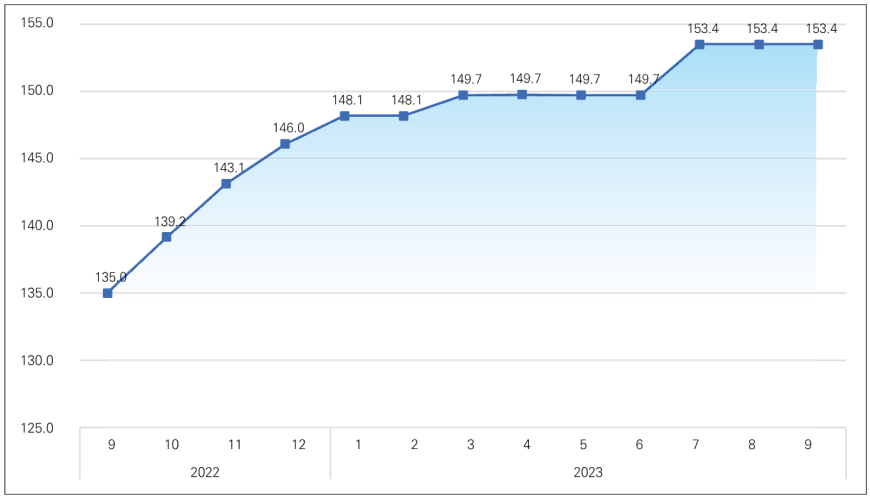
❶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53.4p 기록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함

- '23년 3월 이후 4개월간 증감이 없었으나, 7월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9월까지 다시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33.0	135.0	139.2	143.1	146.0	148.1	148.1	149.7	149.7	149.7	153.4	153.4	153.4	0.0	13.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10.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❷ 국토교통부, '제7차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38)]

» 국토교통부는 제7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착수, 안정적인 중장기 골재수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임

- 골재수급기본계획은 골재수급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수급계획의 기본이며 골재채취 허가의 기준임
- 앞선 6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이 '23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7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은 '28년까지 5년간의 골재수요와 공급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임

38) 대한경제(2023.09.25.),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221011412880993(2023.10.13 검색)

» 제7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은 골재 중장기 수요예측, 골재 중장기 공급계획, 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 골재 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토교통부는 골재 허가실적, 채취실적 등에 대한 분석과 레미콘 출하량, 대형 건설사업 계획 등 골재 소요량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권역별·골재원별 수요를 예측함
- 또한 골재원별 허가량 등 공급능력 검토를 통해 예정지 지정, 향후 개발계획 조사, 광역단위별 골재 공급계획 등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함

» 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은 하천, 육상 등 천연 골재원 감소를 반영, 산림골재 생산을 확대하고 대체 골재원의 품질 안정화 등 광역단위별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게 핵심임

- 국토교통부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논란이 많은 바다골재 개발에 대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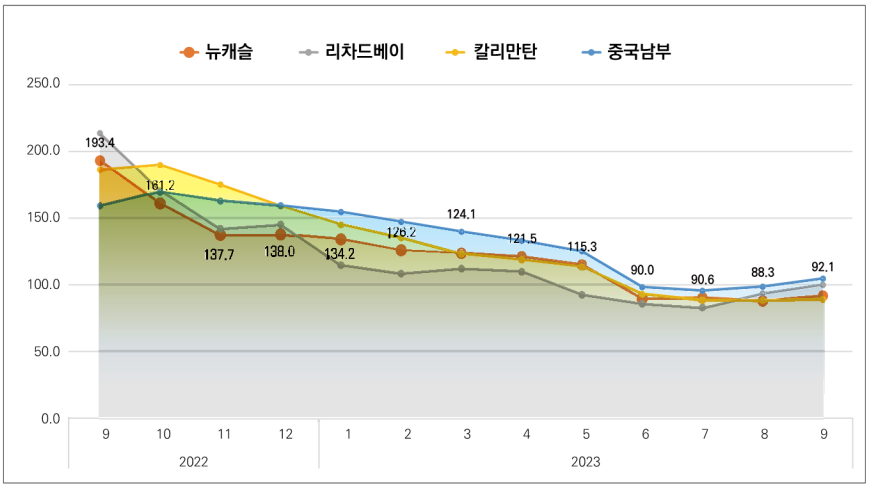
❶ '23년 9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함[39)]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9월 평균가는 92.1달러로 전월 대비 4.3% 증가세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 유연탄 가격이 4.3%, 남아공 리차드베이산 7.0%,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은 0.8% 상승함(전월 대비 기준)

유연탄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93.4	161.2	137.7	138.0	134.2	126.2	124.1	121.5	115.3	90.0	90.6	88.3	92.1	4.3	-52.4
리차드베이	213.9	171.0	142.2	145.2	114.9	108.5	112.2	110.0	92.7	86.0	83.1	93.6	100.2	7.0	-53.1
칼리만탄	186.5	190.1	175.3	159.6	145.5	135.5	123.3	119.0	113.7	93.5	88.7	88.5	89.2	0.8	-52.2
중국남부	159.6	169.8	163.4	159.9	155.0	147.7	140.1	133.4	125.4	98.6	95.8	98.8	104.9	6.1	-34.3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10.24. 검색)

3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3.10.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❷ 프랑스, '27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 계획[40)]

» 프랑스는 '27년 1월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30년까지 40%로 줄이겠다고 밝힘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국가 생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태 전환 로드맵을 공개함
- '3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6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 '27년 1월 이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힘
- 프랑스는 현재 2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으로, '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년 대비 55% 줄일 계획임

40) 경향신문(2023.09.26.), 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9262157015#c2b(2023.10.16.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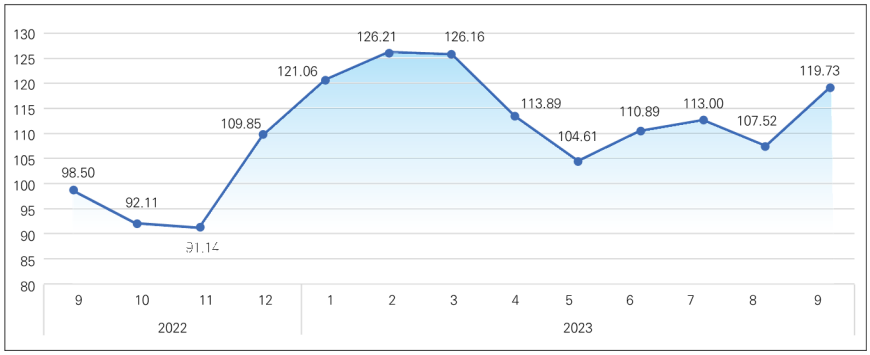
❶ '23년 9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한 119.7달러 기록

» '23년 9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19.7달러로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함

- 8월 중순 이후 중국 정부의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 시행 전 철강 생산업체의 고로 생산량 확대 및 관련 트레이더들의 악의적인 투기 등으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함
- 또한,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반등에 따른 기대감 또한 철광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9월 초 중국 정부가 투기 단속을 위한 규제를 실시하면서 9월 말에는 철광석 가격이 다시 안정화됨

(단위: 달러/톤)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98.5	92.1	91.1	109.9	121.1	126.2	126.2	113.9	104.6	110.9	113.0	107.5	119.7	11.4	21.6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10.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❷ 포스코홀딩스, 호주 철광석 광산 투자 프로젝트 성공적 결실[41)]

» 국내 주요 철광석 수요 업체인 포스코홀딩스는 안정적인 철광석 조달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년에 투자한 호주 광산에 대해 투자비 전액을 회수함

- 포스코홀딩스는 대형 원료공급사들의 과점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해외 광산 개발에 투자를 결심함
- 이에 따라 '10년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 위치한 호주 최대 단일 철광석 광산인 로이힐 광산에 총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약 13년 9개월 만에 해당 투자비 전액을 회수함

» 현재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 소요량의 약 20% 수준을 해당 광산으로부터 조달받아 철강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자원개발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41) 포스코뉴스룸(2023.10.10.), https://newsroom.posco.com/kr/category/press-center/(2023.10.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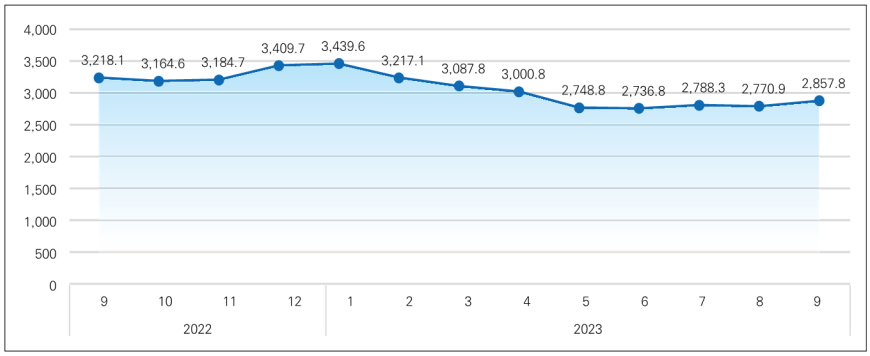
7) 기타광석

❶ 9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2,857.8p로 전월 대비 3.1% 증가함[42)]

» '23년 9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1.2% 하락한 2,857.8p를 기록함

(단위: 2016년 = 1,000기준)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218.1	3,164.6	3,184.7	3,409.7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2,857.8	3.1	-11.2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42)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3.10.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❷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다자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43)]

»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美 국무부가 주재하는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MSP*) 회의에 참석함

*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미 국무부 주도로 출범(22. 6월), 한·미·일·캐·독·프·영·호·핀·노·유럽연합(EU)·스 등 14개국 참여

- 금번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산업부가 참석하여 핵심광물 금융지원 협력방안, 비회원 자원보유국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함
- MSP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앞으로 민관 상호 간의 정기적인 회의,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등 지속적인 정보의 공유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함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MSP에 자원보유국을 비회원국으로 초청하여 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MS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연결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4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10.11.),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7912&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2023.10.16.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8) 목재

❶ '23년 1~8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44.8만㎥로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44)]

» 국내 건설/건축 침체로 재고 부담이 가중되어 수입물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목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을 지속시킴

- '23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원목은 19.8%, 제재목은 10.7%, 성형목재는 16.3%, 합판은 9.8%, 목재펠릿은 4.0% 감소함

품목(단위)	2023년 누적(1-8월)	2022년 누적(1-8월)	증감률(%)
원목(천㎥)	1,448	1,806	-19.8
제재목(천㎥)	1,149	1,287	-10.7
성형목재(톤)	54,193	64,782	-16.3
합판(천㎥)	877	972	-9.8
파티클보드(천㎥)	797	898	-11.2
섬유판(천㎥)	153	152	+0.7
목재펠릿(천 톤)	2,487	2,590	-4.0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9.23.),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7709&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10.16. 검색)

44)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9.23.),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7709&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10.16.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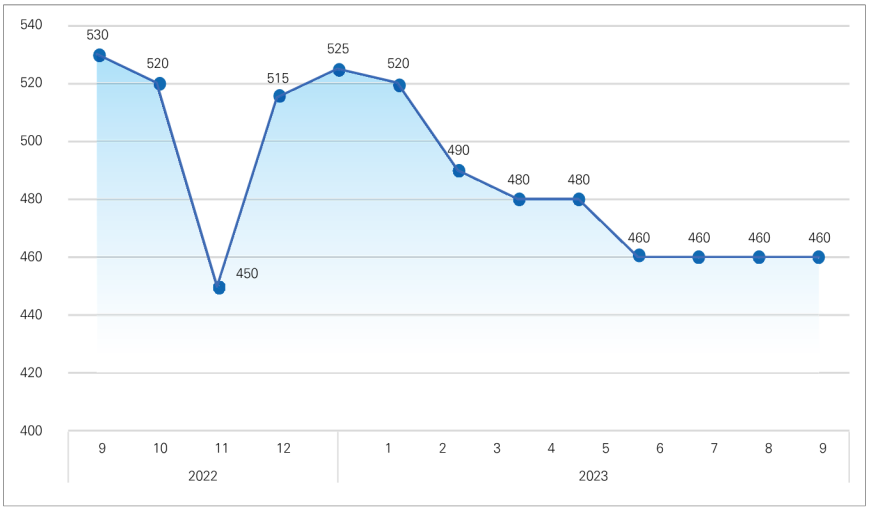
❶ 9월, 국내 고철 가격 보합세 기록

» 국내 9월 생철 가격은 톤당 46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한 수준임

- '23년 1월 톤당 52만 5천 원을 기록한 생철 가격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5개월 연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후, 6월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천 원/톤)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530	520	450	515	525	520	490	480	480	460	460	460	460	0.0	-13.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❷ ’23년 1~9월 고철 누적 수입 물동량 감소[45)]

» 9월 국내 고철 수입은 국내 철강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4.7% 감소했으며, 1~9월 누적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301만 4천 톤을 기록함

- 국가별로는 가장 높은 일본산 수입 물동량이 누적 물동량 기준 9.9% 감소한 214만 4천 톤을 기록했으며, 미국산은 37.9% 감소한 33만 톤, 러시아산은 14.2% 감소한 24만 9천 톤을 기록함

» 반면 고철 수출 물동량은 올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월 누적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26만 7천 톤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하여 11만 2천 톤을 기록한 인도향 물동량과 전년 동기 대비 77.6% 증가하여 5만 3천 톤을 기록한 태국향 물동량이 전반적인 수출 물동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45) 철강금속신문(2023.10.11.), http://pdf.snmnews.com/PDF/REAL/2023/10/11/PS0110110101003018B0002.pdf(2023.10.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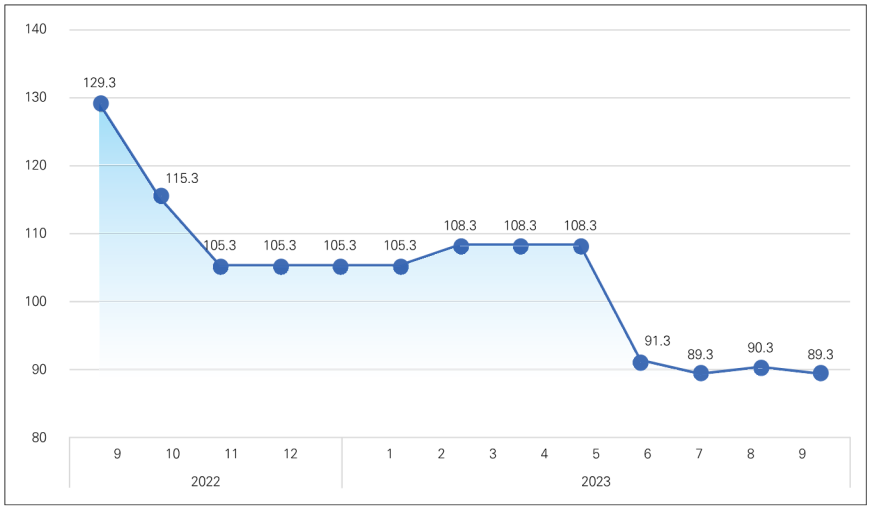
❶ 국내 열연코일 가격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9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0.9% 하락한 톤당 89만 3천 원을 기록함

- 열연코일 가격은 작년 하반기 이후 수요 부진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6월 90만 원대 초반까지 급감한 후 9월 현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29.3	115.3	105.3	105.3	105.3	105.3	108.3	108.3	108.3	91.3	89.3	90.3	89.3	-1.1	-30.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❷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개시 및 아시아 철강업계 타격 우려[46)]

» '23년 10월 1일부터 CBAM 전환기간이 개시된 한편, CBAM 시행 이후 아시아 철강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 CBAM은 EU가 권역 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철강을 비롯하여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부문이 적용 대상임
- CBAM의 시행일은 '26년 1월 1일이며, '23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전환 기간이 진행됨
-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CBAM이 적용되는 철강제품의 EU 평균 수입 가격은 '22년 기준 톤당 약 1,450달러이며,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아시아 생산업체의 경우 CBAM 전환 이후 비용이 증가하여, '34년 기준 인도산 철강은 약 56%, 중국산 철강은 약 49%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함
- 일본 주요 완제품 철강 수출업체에도 톤당 275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등 유럽으로의 철강 수출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철강업체에 타격이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EU 내 산업 생산 비용의 추가 증가로 인한 내부적인 반발 또한 예상된다고 밝힘

46) 철강금속신문(2023.10.16.), http://pdf.snmnews.com/PDF/REAL/2023/10/16/PS01101601010030 1B0001.pdf(2023.10.17.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❸ 후판, '23년 1~9월 수출입 물동량 증가[47)]

»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9월 누적 중후판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230만 톤, 수입은 15.5% 증가한 169만 6천 톤을 기록함

- 중후판 수출 물량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 시장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9월 누적 물동량 기준 EU 수출이 62.4%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튀르키예(31.7%), 일본(20.9%), 중국(20.5%)도 각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한편 중후판 수입 물량의 경우, 일본산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후판 수입이 64.5% 증가하여 전체적인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2년에는 일본 수입 물동량(82만 3천 톤)이 중국산 수입량(58만 톤)보다 많았으나, 올해는 중국이 내수 시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 수출을 늘림에 따라 중국산 후판 수입량(95만 5천 톤)이 일본산 수입량(70만 3천 톤)보다 더 높은 값을 기록함

47) 철강금속신문(2023.10.16.), http://pdf.snmnews.com/PDF/REAL/2023/10/16/PS01101601010060 1B0001.pdf(2023.10.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1) 자동차

❶ '23년 8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3만 667대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48)]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8월 내수는 국산차의 신차효과에 의한 증가와 수입 전기차의 낮은 판매 실적이 맞물려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함

-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반면, 수입차는 11.2% 감소함
-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한 39,595대이며,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하이브리드는 52.6% 증가한 반면, 전기차는 전년 동월 대비 33.6% 감소함

» 수출은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및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0.7% 증가한 201,062대를 기록함

- 친환경차 수출은 28.9% 증가한 53,157대이며, 특히 전기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1% 증가한 24,161대를 기록함
- 완성차 수출액은 하계휴가로 인해 전월 대비 10.3% 감소하였으나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SUV 차량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달성함
- 부품 수출액은 북미·EU 등 주요 시장내 국산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와 그에 따른 현지공장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19억 달러로 증가세로 전환함

» 생산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311,957대를 기록함

- 해외생산은 미국, 인도, 슬로바키아 등의 현지 공장 생산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326,545대를 기록함

48)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3.09.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95&menunum=0004#(2023.10.16. 검색)

'23. 8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단위 : 대, 백만 $,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1~8월
내수	1,684,113	131,638	1,082,536	136,066	130,667	1,160,470	-4.0	-0.7	7.2
(국산차)	1,384,722	104,593	895,394	114,746	106,638	980,705	-7.1	2.0	9.5
(수입차)	299,391	27,045	187,142	21,320	24,029	179,765	12.7	-11.2	-3.9
수출	2,300,333	166,531	1,462,210	229,746	201,062	1,852,228	-12.5	20.7	26.7
(완성차 수출액)	54,067	4,112	33,583	5,904	5,293	46,850	-10.3	28.7	39.5
(부품 수출액)	23,316	1,798	15,620	2,023	1,905	15,556	-5.8	5.9	-0.4
생산	3,757,049	284,704	2,388,066	352,972	311,957	2,862,625	-11.6	9.6	19.9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9.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95&menunum=0004#(2023.10.16.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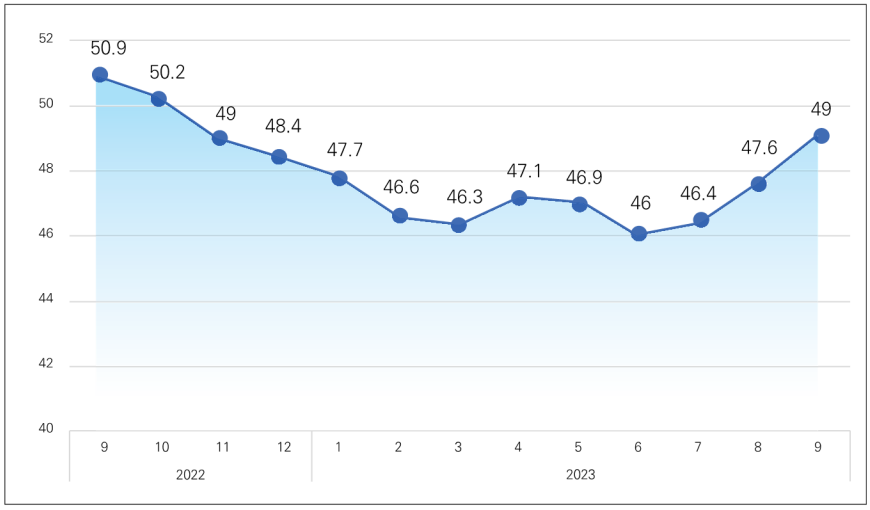
12) 잡화

❶ '23년 9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49] 전월 대비 1.4p 증가한 49.0p로 11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50]

» 미국의 9월 PMI 지수는 49.0p로 경기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6월 46.0p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양상, 이에 예상보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됨

- 9월의 생산부문 지수는 52.5p를 기록하며 '22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증가세를 기록함
- 고용부문 지수는 3개월 연속 위축을 극복하고 반등하여 9월에 51.2p를 기록, 이에 ISM은 향후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함

미국 PMI(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49)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0) Trading Economics (2023.10.2..),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e (2023.10.18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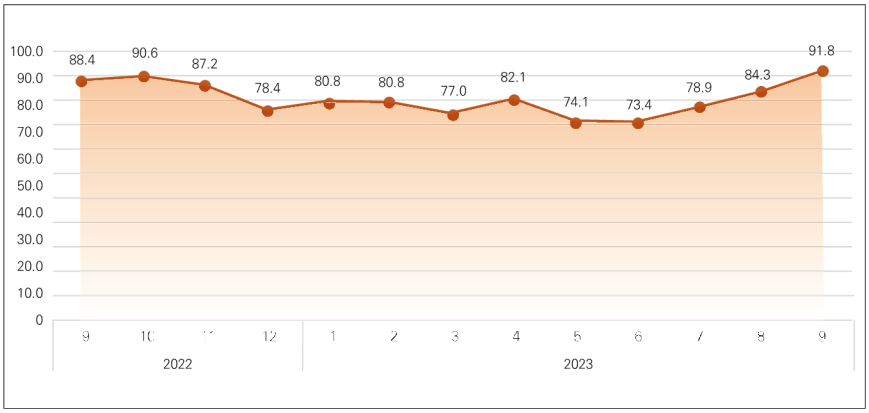
❶ '23년 9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상승

»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가는 지난 6월 이후 반등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배럴당 평균 91.8달러를 기록함

- 급등했던 유가가 긴축 장기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6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와 OPEC+의 감산연장 발표 등으로 증가하던 유가는 이-팔 전쟁을 비롯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됨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91.0	91.2	86.3	77.2	80.4	82.1	78.5	83.4	75.0	75.0	80.5	86.5	93.3	7.9	2.5
Brent	90.6	93.6	90.9	81.3	83.9	83.5	79.2	83.4	75.7	75.0	80.2	85.1	92.6	8.8	2.2
WTI	83.8	87.0	84.4	76.5	78.2	76.9	73.4	79.4	71.6	70.3	76.0	81.3	89.4	10.0	6.7
평균	88.4	90.6	87.2	78.4	80.8	80.8	77.0	82.1	74.1	73.4	78.9	84.3	91.8	8.9	3.8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0.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❷ 미국, 올해 상반기 LNG 수출규모 1위 달성[51)]

» 에너지 관리청(EIA), 미국의 올해 상반기 LNG 수출규모는 2위 호주(10.6Bcf/d), 3위 카타르(10.4Bcf/d)보다 많은 11.6Bcf/d를 기록했다고 밝힘

- '22년 6월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Freeport LNG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5Bcf/d) 증가함
- '18년 이후, 미국의 LNG 수출 증가폭은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한 지역은 유럽으로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이 수입하였으며, 유럽 전체 LNG 수입은 올해 처음으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보다 많았음
- 러시아 PNG 공급이 축소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해상 LNG 인수설비(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를 도입하여 LNG 수입이 크게 증가함

5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9.2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0.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❸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 금지로 석유제품 공급 부족 심화[52)53)]

» 최근 정제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러시아 석유제품시장 공급이 부족해짐

- 러시아는 최근 몇 달간 휘발유·디젤 공급부족을 겪으며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특히 수확철인 러시아 남부 지방에서는 연료 수급 불안 우려가 높아짐
- 이 같은 러시아의 제품시장 수급 불균형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석유 정제시설 유지보수', '철도 수송 병목현상', '루블화 가치 약세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 자극'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석유제품 수출가격이 높아지면서 러시아 정유사들은 해외 수출을 늘리면서 최근 몇 달 간 휘발유와 경유 부족을 겪음

» 9월 21일, 러시아는 자국 제품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의 일시 중단을 결정함

-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조치는 이미 타이트한 경유 수급을 악화시키고, 석유 수요가 높은 겨울을 앞두고 원유 및 등·경유 등 중간유분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음
- 9월 25일 일부 선박용 중유 및 고유황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를 완화했으나, 제품시장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5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9.2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0.17. 검색)

5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0.0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0.17. 검색)

- 러시아 부총리는 석유제품 수출 금지 조치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가격 및 국내 수급 안정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10월 이후에도 제품 수출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중간유분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유럽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음
-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출입 규제로 러시아는 브라질, 튀르키예,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에게 경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정유사들은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내수를 충당하고, 자국 석유제품을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러시아는 석유제품 수출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회원국 4개국(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 금지하고 있어, 튀르키예와 중동 등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유럽과 아시아는 경유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음

»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이후, 러시아 내 제품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일부 시장분석가는 내수 충당 후, 남은 제품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러시아가 장기간 수출 금지를 유지할 경우, 정유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정유공장 가동 중단은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러시아의 경유 수출은 늦어도 2주 안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❹ 셰브론(Chevron), 이스라엘 Tamar 가스전 생산 중단[54)55)]

»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남부의 Tamar 가스전을 운영하는 셰브론은 이스라엘 에너지부의 지시에 따라 가스전 생산을 중단함

- 이스라엘은 Tamar, Leviathan, Karish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19년 5월, '21년 5월)에도 양측의 무력충돌로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
- Tamar 가스전의 6개 생산정은 710만~850만 cm/d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발전용 에너지 수요의 70%를 충족하고 있음
- 이스라엘 에너지부는 Tamar 가스전의 생산 중단 후,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대체 공급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함

54)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0.1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0.17. 검색)

5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0.1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9.15. 검색)

» Tamar 가스전의 운영 중단으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할 전망임

- Chevron은 요르단을 경유하는 우회경로를 통해 이집트로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다만,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수출 축소로 이집트의 LNG 수출과 유럽의 LNG 수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이집트는 수입한 이스라엘 천연가스로 자국 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물량은 LNG 형태로 수출해왔으나, 지난 하절기 내수 증가로 이집트의 LNG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수출을 축소 또는 중단하게 될 경우, 이집트의 내수 및 LNG 수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평가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❺ IEA와 OPEC, '24년 석유 수요에 대하여 상반된 전망 발표[56)]

» 10월 12일 IEA와 OPEC는 각 기관의 10월 보고서를 통해 '24년 석유 수요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발표함

- IEA는 10월 월간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여건 악화와 에너지 효율의 지속적 증가를 석유 수요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24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을 9월 발표하였던 99만 b/d에서 88만 b/d로 11만 b/d만큼 하향 조정함
- 반면, OPEC은 세계 경제의 견고한 성장과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석유 수요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4년 석유 수요 증가분과 대 OPEC 원유 수요를 225만 b/d와 80만 b/d로 전망하여 9월의 전망치를 유지함

5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0.17),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0.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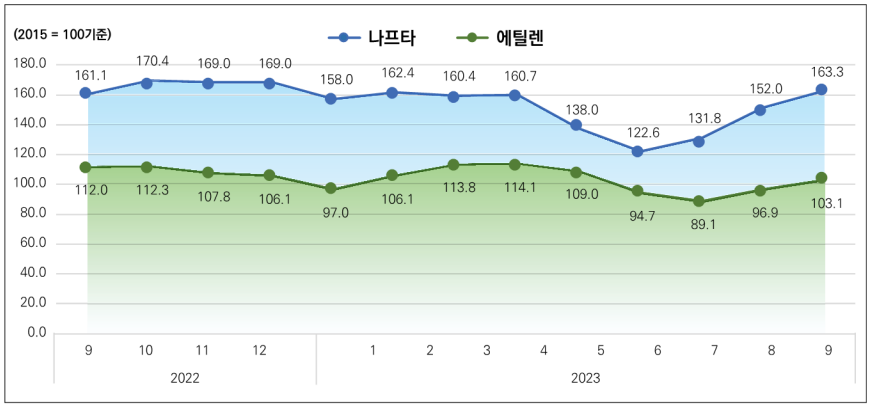
14) 화학공업생산품

❶ 나프타 및 에틸렌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상승

» 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하고 있으며,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

- 최근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가 6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에틸렌은 7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함
- 중국 석유화학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로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1.1	170.4	169.0	169.0	158.0	162.4	160.4	160.7	138.0	122.6	131.8	152.0	163.3	7.4	1.3
에틸렌	112.0	112.3	107.8	106.1	97.0	106.1	113.8	114.1	109.0	94.7	89.1	96.9	103.1	6.3	-7.9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10.24.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❷ 석유화학업계, 업황 악화와 부진으로 사업 재편[57)58)]

» 석유화학 기업들이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기존 범용 제품 설비를 매각하거나 신사업에 뛰어 드는 등 공격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 롯데케미칼은 최근 중국 합작공장(롯데삼강케미칼)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중국 자회사(Lotte Chemical Jiaxing) 지분도 현지 파트너사에게 매각했으며, 동박을 생산하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등 석유화학 중심 사업 구조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LG화학은 대산공장 내 스티렌모노머(SM) 공장을 철거한데 이어, 디스플레이용 필름과 편광판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나프타분해시설(NCC) 공장도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은 계속 늘려갈 방침임
- 석화업계의 노력에도 하반기 전망은 어두운데,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 분기점인 3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틸렌 지표는 더 악화되고 있음
- 중국발 공급과잉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격적 증설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수출 물량도 크게 감소함
- 중국이 글로벌 수요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하면서 범용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범용 제품 공장의 가동률을 낮추면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고객사를 다각화하고 있음

57) 뉴스핌(2023.10.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013000558(2023.10.17. 검색)

58) 한국석유화학협회(2023.10.13.),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10(2023.10.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❸ 석유화학기업, 생존을 위한 중국 사업 정리 가속[59)60)]

»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확대로 중국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해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음

- 중국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핵심 수출시장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기초소재 자급률 향상과 수요 감소로 고전하고 있으며, 올해 초 기대하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마저 미미하자 석화업계가 서둘러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나섬
- SKC는 중국에서 운영 중이던 웨트케미칼, 세정 등 반도체 기초소재기업을 현지기업에 매각했으며, 이후 국내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을 인수하는 등 고부가 소재와 부품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59) 브릿지경제(2023.10.17.),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1016010003543(2023.10.17. 검색)

60) 한국석유화학협회(2023.10.17.),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20(2023.10.17. 검색)

- LG화학은 '20년 중국 현지업체에 LCD 편광판 사업을 매각한 후 남은 자동차, IT용 편광판·소재 사업도 지난 9월에 중국업체에 매각하는 등 중국기업의 물량 공세로 수익성이 낮아 한계사업으로 지목되어온 사업을 정리하고 '전지 소재·친환경 소재·혁신 신약'이라는 3대 핵심사업에 집중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 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10. 30

편집겸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